OPEN / Jeju 제주특별자치도		2025. 7. 11.(금) **배포 즉시** 보도 가능합니다.		
농업기술원	**보 도 자 료** PRESS RELEASE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강병수	☎ 760-7901
		특화작목팀장	이성돈	☎ 760-79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동영상 : 있음□ 없음■		**사진**(웹하드) : 있음□ 없음■		**후속자료** : 없음

마늘 재배 시작…토양소독 및 건전한 씨마늘 사용

- 마늘 파종 전, 토양소독과 철저한 씨마늘 선별·소독 당부 -

- 적기 파종을 통해 월동 전 마늘 병해충 및 생리장해 예방 필요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**(소장 강병수)**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마늘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, 마늘 재배 농가에 철저한 파종 준비와 적기 파종을 당부했다.**

❑ **특히 파종 준비를 위한 토양소독과 우량 씨마늘 선별 및 소독을 강조했다.**

○ 마늘은 인편으로 번식하는 영양번식 작물로 건전한 씨마늘의 사용 여부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된다. 바이러스 등 전년도 재배지에서 감염되었던 병해충이 다음 세대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소독과 함께 병해가 없고 상처 없는 씨마늘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○ 또한, 최근 기후 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는 가운데 토양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기 파종할 경우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.

❑ **우선 토양소독을 위해 파종을 앞둔 재배지는 4~5주 전에 퇴비와 석회비료를 고르게 살포한 후 깊이갈이를 한다. 그 후 흑색썩음균핵병, 선충, 응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용약제를 살포한 뒤 비닐을 피복한다.**

○ 이후 파종 1~2주 전에 비닐을 걷어 소독약제의 가스를 날린 후에 마늘을 파종해야 한다.

❑ **씨마늘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포장에서 생산된 것 중 물리적인 상처 없이 깨끗한 마늘의 인편을 분리해 선별해야 한다.**

○ 이때, 인편의 무게는 5~7g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. 인편이 작은 것은 수량이 떨어지고, 10g 이상의 큰 인편은 벌마늘(2차 생장) 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○ 선별된 종구(인편)는 파종 2~3일 전 마늘 자루에 담아 전용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용한 약제에 1시간 정도 침지 소독한 후,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 뒤 파종해야 한다.

❑ **적정 파종 시기는 9월 상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이며, 만약 주아배재*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정도 빠르게 파종하는 것이 좋다.**

* 주아재배: 주아는 마늘의 줄기 끝 꽃대 부위에 형성되는 작은 종구로, 바이러스와 병해충 감염이 적어 종구 생산 방식 중 하나로 활용됨

○ 또한 파종 후 건조한 토양에서는 뿌리내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, 충분한 물 주기로 토양수분을 알맞게 유지해 발아와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.

❑ **이성돈 특화작목육성팀장은 “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온도가 높아져 월동 전 병해충 피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”며 “토양소독과 함께 우량 씨마늘을 선별·소독하고, 알맞은 시기에 파종한다면 월동 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**